

“킬러로봇 현실화, 위기의 신호탄?”

국제 규제·윤리적 기준 마련 절실

빅테크·방산업체 군사 AI 협력

초지능 AI, 5~20년 내 등장 가능
노벨상 수상자들, 규제 필요성 제기
군사 AI 규제, 미온적 대응 등 우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전쟁 무기에 활용될 만큼 성능이 빠르게 개선되자 노벨상 수상자들이 경고를 하고 나섰다. 당초 예상보다 AI 개발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적용 분야가 넓어지고 있지만 군사 AI 규제 등에는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글로벌 AI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들과 협력해 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AI 군사 무기가 작전 지휘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리학자들은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가져올 통제 불능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 방산업체와 AI 무기 개발 협력

10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 방산업체와 협력에 나서고 있다. 챗GPT로 유명한 오픈AI는 방산업체 안드루 인더스트리즈와 미군의 드론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들은 오픈AI의 AI 모델을 이용해 드론 공격 위협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격추하는 안드루의 대(對) 무인항공기시스템(CUAS)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미국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도 최근 실드AI와 AI 기반 무인기 개발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었다. 뿐만 아니라 오픈AI의 경쟁자로 꼽히는 AI 기업 앤스로픽은 최근 아마존웹서비스(AWS) 등과 손잡고 AI 모델 ‘클로드’를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메타는 지난 4일 미국 국방 기관과 관련 민간 업체에 자사 AI 모델 라마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빅테크 기업들도 AI 방위 산업에 뛰어들 때는 글로벌 군비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서다.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각국 정부들은 민간 AI 기업과 협력해 군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 최고 성능의 AI 모델을 앞다퉈 도입하는 한편 국방 관련 첨단 무기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실제 AI 기반 무기는 각국 전쟁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수백km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 중심부의 전력 시설과 정유 공장을 정밀 타격했다. 공격 수단으로 사용된 AI 드론은



지난 7월2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의 최전방 인근 밀밭에서 우크라이나 국가방위군 15여단 소속 군인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정찰 드론을 띄우는 모습. /뉴시스



인공지능 학문 선구자인 조프리 힌턴 교수가 지난 10월 8일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수상했다. 사진은 힌턴 교수가 지난 6월 토론토 학술 회의서 발표하는 장면.

스스로 지능을 탐색하고 목표를 찾아내 자폭 공격에 나선다. 이스라엘군은 AI로 팔레스타인 주민과 무장 단체의 연관 가능성을 추정해 테러 의심자를 찾아내고 있다.

국내 방위산업체도 인공지능(AI)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년 내 실전 배치를 시작해 약 5년 뒤에는 AI 자주포 등 중화기까지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항공우주(KAI)는 유·무인 전투기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AI 조종사’를 개발 중이며 2020년대 후반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초지능 AI 등장 코앞… 군사용 AI 우려”

AI 기술이 실제 전투에도 도입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자 노벨 물리학자들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인간의 인지능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10년 내 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들이 통제불능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지난 7일(현지시간) 스웨덴 왕립과학한림원에서 개최된 물리·화학·경제학 노벨상 수상자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개발 속도를 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

지능은 5~20년이면 개발 될 것”이라며 “(AI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의 안전성을 보다 일찍 고민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힌턴 교수는 AI의 단기적 위협으로 ‘자율 살상 무기 체계(LAWS)’의 개발을 꼽았다. LAWS는 AI가 적을 스스로 인식하고 공격할 수 있는 체계다. 이에 힌턴 교수는 AI가 군사 분야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군사 AI 규제는 미온적인 것을 우려했다.

힌턴 교수는 “각국 정부는 LAWS와 관련해 규제를 스스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며 “유럽의 AI법은 AI의 군사적 활용을 제외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스라엘 등 무기를 공급하는 주요국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군사 AI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AI 기술이 탑재된 무기가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람을 겨냥해 사살하는 ‘킬러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픈AI 내부에서도 회사가 군사용 AI 파트너십을 체결한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오픈AI 일부 직원들은 최근 안드루와 체결한 군사용 인공지능(AI) 파트너십에 대해 윤리적 우려를 제기했다. 오픈AI 직원들이 내부 게시판에서 AI 기술을 군사적 용도로 제공하는 데 대한 불만을 표명한 것. 오픈AI는 지난 4일 안드루와의 협력 사실을 발표하며 AI 기술을 미군의 드론 방어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국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이 기술이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겨냥하거나 다른 광범위한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네이버웹툰, ‘AI 큐레이터’ 소비 다양성 확대

네이버웹툰이 10일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 ‘AI 큐레이터’가 작품 소비 다양성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이진웅 고려대 교수 연구팀이 수행했다.

AI 큐레이터는 웹툰·웹소설 콘텐츠

추천에 특화된 기술이다. 네이버웹툰은 지난 6월 앱 진입 시 나타나는 작품 노출 순서 기본값을 ‘인기순’ 정렬에서 ‘AI 큐레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알아서 딱!’ 정렬로 바꿨다. 해당 기능은 대중적 인기와 상관없이 이용자 취향과 선호를 고려해 AI가 추천하는 작품을

우선 노출하는 방식이다.

연구팀은 이 추천 방식이 네이버웹툰 플랫폼 내 소비 다양성을 높여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알아서 딱!’으로 작품이 추천될 경우 다양한 기준에서 ‘시장 집중도(HHI)’가 감소했는데 HHI는 시장솔림 현상에 관한 지수다. 낮을수록 시장 솔림이 덜하다는 의미다. /김서현 기자 seoh@

성과주의·세대교체 혁신 강화

40대 젊은 리더십 전면 배치

현대차그룹 2024년 정기 임원인사 조직 체질개선·미래 전환 가속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성과주의와 세대교체를 기조로 한 2024년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역대 최고 실적에 따른 대규모 승진을 진행하기 보다 회사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는 40대 젊은 리더 비중을 확대하며 미래를 대응하기 위한 세대교체도 진행되는 분위기다. 올해 정기 임원인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지난해(12월 20일)보다 10여일 앞당겨 진행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2024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현대차 73명, 기아 43명, 현대모비스 20명 등 총 239명이 승진했다. 지난해 하반기 임원인사(252명) 대비 승진 인원은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사업별 성과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의 경우 역대 최대 실적 경신에 기여도가 높은 인원들을 발탁 승진한 점이 주목된다. 최고재무책임자

(CFO)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재무 목표 초과 달성과 2030 전략 수립 등 성과를 창출한 이승조 전무와 IR담당 임원으로서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전일 ‘A등급’ 획득 및 인도법인 IPO(기업공개) 성공 등 주요 성과를 견인한 구자용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아는 재경본부 내 요직과 미국판 매법인 재무총괄 등을 거친 김승준 상무가 전무 승진 및 최고재무책임자(CFO)에 보임됐으며, 시장 상황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을 주도하며 최대 실적 달성에 기여한 글로벌사업관리본부장이 태훈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현대로템은 방산사업부문의 대규모 해외 수주 실적을 이끌어낸 디펜스솔루션사업부장 이정엽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디펜스솔루션사업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임원인사는 내년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조직과 리더십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그룹의 미래 사업 전환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인재의 과감한 발탁과 육성 등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직무별 특화 AI로 기업 업무 변화 선도

SKT·SK C&C B2B 사업 혁신

SK텔레콤과 SK C&C가 AI(인공지능)를 중심으로 B2B(기업간거래) 사업 혁신에 나선다. 인사·홍보·법무 등 직무에 특화된 AI 에이전트, 시장 트렌드 예측 AI 서비스 등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SK C&C와 진행 중인 ‘엔터프라이즈 AT TF’가 ‘AIX사업부’로 정식 출범하고 AI B2B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6월 발족된 엔터프라이즈 AT TF는 SK그룹 내 산재된 AI 역량을 집결해 AT(AI Transformation·AI 전환)을 글로벌 톱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AI B2B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정식 출범한 AIX사업부는 그룹의 공통 현안과 그룹

사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AT 사례를 발굴해 ▲에이닷 비즈(A. Biz) ▲AI마켓 인텔리전스 ▲통신 AI ▲제조 AI 등 4가지 서비스를 선보인다.

첫 시작으로 2025년 1월 SK텔레콤과 SK C&C 사내 구성원에게 에이닷 비즈 클로즈 베타 서비스를 선보인다.

에이닷 비즈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AI 에이전트로 회의 일정, 회의록·보고서 작성, 시장동향 요약, 지식 검색 등 일상 업무에서 활용도 높은 AI 기능과 ‘에이닷 비즈 프로’로 구성된다.

에이닷 비즈 프로는 ▲AI 서류 심사 등 채용 과정을 지원하는 HR 에이전트 ▲보도자료 작성, 부정뉴스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는 PR 에이전트 ▲법령·판례 검색 및 자료를 지원하는 법무 에이전트 등 직무별로 특화된 AI 기능이다. /구남영 기자

LGU+, ‘유플투빨’ 참여 700만건 돌파

멤버십 서비스 검색량 전년비 4배 ↑

LG유플러스는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월 정기 멤버십 혜택 프로그램 ‘유플투빨’의 누적 참여 건수가 700만 건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플투빨은 매월 특정일에 다양한 브랜드와 제품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U+멤버십’ 앱에 접속해 할인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용건수 증가에 힘입어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각종 포털에서 LG유플러스 멤버십 서비스 검색량은

전년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었다.

이달의 유플투빨 혜택은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외식 분야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파리바게뜨(케이크 최대 1만원 할인)·투썸플레이스(홀케이크 최대 15% 할인)·브레덴코(케이크 5000원 할인)·배스킨라빈스(케이크 최대 1만2000원 할인)·아웃백(최대 25% 할인)·피자헛(최대 55% 할인)·비발디파크(스키리프트 최대 60% 할인) 등 제휴사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구남영 기자